대도약의 발판 마련 '분주'

전북도, 정부 추경·국가예산 확보 위해 '구슬땀'

최용범 행정부지사, 도정 현안 해결 위한 주요부처 방문

전북도는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동력이 되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내년도 주요사업 국가예산이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중심으로 지휘부가 부처 방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전북도 지휘부의 발 빠른 국가예산 확보 활동은 전북 대도약의 성장발판 동력 사업 대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 시작되는 4월에 사전 설명활동을 강화해 부처단계에서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18일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지난 8일 송하진 지사의 국가예산 활동 시 면담이 이뤄지지 않은 산업부, 환경부, 복지부 등 주요 부처 실국장을 방문하여 도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이번 정부 추경 및 2020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주요 분야별 부처 건의사업으로는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탄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이끌 수 있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미래형 상용차산업 핵심 기술개발, 시험·인증 기반구축 추진 등 전라북도 자동차산업 구조 고도화 기회를 마련할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비 128억원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직자의 유사업종 재취업 및 군산항 자동차 수출물동량 확보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중요 역할을 할 '중고자동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구축비 5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 금번 정부추경의 시초가 된 미세먼지 관련 도 추진사업이 정부안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도내 미세먼지 발생량 비중이 높은 이동오염원의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사업 확대(1만대)' 지원비로 추경예산에 국비 113억원 반영과 대중교통 및 도보시 도로 재비산먼지에 빈번하게 노출되므로 이에 따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차량 22대 보급비'로 추경예산에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서남대 폐교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 강화 도모로 정부가 확정발표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조속한 설립과 노후 화장시설 건립 등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안' 4월 국회 공청회 개최와 상반기 국회 통과를 위한 복지부 차원의 적극 지원 요청과 최근 화장수용 급증으로 22년 만장이 예상되는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조성 사업비 20억원, 1986년부터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노후 남원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 10억원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 본격시점인 4월중에 지휘부 등이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하여 국가사업으로 필요성,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활동을 추진할 계획이고, 아울러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위해 23일 지역국회의원 수석 보좌관과 국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 공동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통해 일자리 창출

전북도는 18일 도청에서 2019년 제1차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개최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18개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18개 기업에 94명을 선정했다.

이번 심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 스타 사회적기업 육성가능 여부, 사회적기업의 인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선 신규 지정했으며,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기업은 배제했다.

특히 이번에는 홍보동영상 제작업체인 익산 (유)플라츠 등 사회적경제기업을 돕는 기업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사무용품 등을 취급하는 전주오피스문구 협동조합도 신규 지정되어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18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가치 실현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재심사에 선정된 기업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가 지원 연차에 따라 1년간 지원된다. 이번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도내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128개, 예비 사회적기업 90개로 총 218개소가 운영하게 됐다.

전북도 이원택 정무부지사는 "이번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사회적기업가의 자질 향상 및 회계, 노무, 판로개척, 기업경영 등에 전문가 자문 제공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7월초 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지역 청년과의 소통창구… 전북 청년정책포럼 출범

지역 청년과의 소통창구인 제4기 전라북도 청년정책포럼이 새롭게 출범했다.

전북도는 18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층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 현장에서의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4기 청년청책포럼을 구성하고, '청년, 소통, 공감으로 만들어가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로 첫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4기 청년정책포럼은 공모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직장인, CEO, 문화예술인, 농업인, 자영업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 50명으로 구성되었고, 청년일자리, 창업, 복지, 문화, 농촌의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특히, 정책참여활성화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토크콘서트, 찾아가는 청년창업 Start-Up 개최, 청년정책TF팀 운영, 도, 시군과의 청년단체 교류 등을 추진하며 정책채널 운영을 통해 분과 활동에서 도출된 시책 또는 건의사항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신비로운 풍경 담은 옥정호 물안개길 걸어보세요"

임실군, 내일 전북천리길 생태·문화 체험행사 개최

물안개길 8km 코스·통키타 공연에 먹거리까지 풍성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에서 전북 천리길 물안개길 걷기 행사가 열린다.

임실군은 옥정호 물안개길에서 '전북천리길 생태·문화 체험행사'를 20일 개최한다. 이번 생태문화체험행사는 마암리 정류장을 출발해 육모정, 못지골, 용운마을까지 8㎞구간의 물안개길을 걷는 코스다.

옥정호는 신비로운 풍경을 담은 호수로 잘 알려져 있다. 구불구불 호숫가를 따라 이어져 있는 둘레길은 옥정호의 수려한 풍경을 제대로 느끼게 해주기에 충분하다.

이날 행사는 아름다운 옥정호 주변의 자연생태와 역사, 유적 등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펼쳐진다.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통기타와 임실치즈, 막걸리 등 다양한 임실 먹거리 체험행사가 준비되어 있어 행사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에게 기대 이상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 "옥정호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고 있어서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임실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며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물안개길 걷기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아름다운 봄날의 풍경을 맘껏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오전 9시30분부터 물의 향연 통기타음악과 함께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물안개길 걷기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임실군청 환경보호과(☎640-295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기자

전북도가 18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잼버리 콘텐츠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의 흥미 유발을 목표로!

전북도, 잼버리 콘텐츠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분야별 전문가 23명 구성… 면밀한 검증·발굴 나서

전북도가 18일 전주 한옥마을에서 14개 시군별 잼버리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검증하기 위한 잼버리 콘텐츠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스카우트, 관광, 청소년, 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잼버리 콘텐츠 모니터단 23명을 비롯해 도 잼버리추진단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그동안 양질의 잼버리 콘텐츠 개발을 위해 14개 시군의 우수한 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권역별로(문화·해양·산악) 분류·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모니터단의 운영과제는 지금까지 발굴된 시군별 체험자원을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목표(4S)와 UN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17개)에 부합하면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잼버리 과정활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모니터단 구성원들은 약 4개월 동안(4~7월) 20차례에 걸쳐 시군별 자원을 직접 체험해보고, 자원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 및 의견 제시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완성된 프로그램은 향후 12일 간의 잼버리 기간 동안에는 잼버리 과정활동으로, 잼버리 전후 기간 동안에는 HoHo 프로그램 및 운영요원 대상 프로그램 등으로 활용된다.

정철우 잼버리추진단장은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해서 안전하고, 매력있는 양질의 과정활동 프로그램 개발은 필수적"이라면서 "이번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과정활동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범도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 청소년캠프(5월), 새만금 국제유스캠퍼리(8월) 등 다양한 캠핑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